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6주일
제33권 34호(다해) 2013.7.21

[묵상]



예수님 곁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온갖음식을 준비하기에 분주한 마르타.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드는 일로 분주한 마르타.

일손이 부족한 마르타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뜰게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언니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마르타는
채 깨닫지 못한 마리아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사실 봉사는 말씀의 힘에서 나오기에
필요한 건 하나라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봉사가
쓸데없는 열려와 걱정이 되듯
봉사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 역시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리아도 열심히 시중들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언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언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쌍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파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채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원종욱 스테파노, 박연순
	(생) 김윤기, 김현실 아녜스, 신해진, 김일선 베드로,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 임현기 마르코, 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전시용 요한, 김금점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홍지선 미카엘, 주용범 아브라함, 송학래, 정학순 발바라, 홍순희, 신재건 프란치스코
	(생) 이윤조 클라라, 김춘자 막달레나, 한창주 요아킴 & 한경숙 안나, 오세호 레이몬드, 김현실 아녜스, 정진학 알베르트 & 정진세 사이먼, 로비 스탠포드, 박개순 도미니코 & 현석주 아오스당, 홍석인 체칠리아, 토런스 남3반가정들, 제26차 성령대회 참가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8,1-10

화답송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 수 있으리이까?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수 있으리이까?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1,24-2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복음 루카(Luke) 10,38-42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은혜의 밤	205	182
봉헌	"	257	269
성체	"	292	286
파견	"	241	24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문화

▶ 하느님 말씀과 사회 홍보 수단

113). 옛것이든 새것이든 홍보 매체들을 조심스럽고 슬기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역시 하느님의 말씀과 문화 사이의 관계
와 결부된 문제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이러한 매체들을 올바르게 알
고 이들의 급속한 발전과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
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러 영역, 특히 인터넷과 같은 이른바
뉴 미디어의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더욱 힘
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매스컴 세계에서 교회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
도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여러 차례 이 주제에 관하
여 언급하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단들을 습득하는 것은 복음화를 위한 신앙인들의 항구한 노
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온 지구를 망처럼 덮고 있으며, 그라
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데
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
하여라." (마태 10,27)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쇄된 형태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매체
를 통해서도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계 주교 대
의원회의 교부들과 함께 능력을 갖추고 미디어의 세계에서 의
미 있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
고자 하며, 또한 그들이 더욱 폭넓고 수준 높은 투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형태의 매스컴으로서 오늘날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새로운 광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상 세계가 결코 실제 세계를 대체할 수 없다
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복음화가 의미 있는 관계들을 형성
하는 데에 뉴 미디어가 제공하는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 인격적 접촉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는 것
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 접촉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수백만 개
의 화면에 수십억의 표상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세
계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다면 인간을 위한 공
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마르타와 마리아의 화해

재미삼아 사람의 성격과 혈액형을 연결지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언니가 바쁘던 말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마리아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AB형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썩썩하게 팔을 걷어 붙이고 음식을 준비하며, 주님에게 기침없이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던 마르타는 소심한 A형은 아니었겠지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루카 10,41-42)

마르타도,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르타는 맛있는 음식에 자신의 사랑을 담으려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마르타의 경우에는 수단(음식)과 목적(사랑)이 술그머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음식 만드는 일이 최종 목적이 되는 순간, 동생이 얕미워지고 주님도 원망스럽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성과와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려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직장에서의 근무 못지않게 일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เหน이 되면 녹초가 되어 기도할 시간은커녕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에 쫓겨 사는 사회는 말 그대로 ‘피로사회’입니다.

건강한 삶은 외적인 활동과 내면으로의 집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삶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돌아봄 없이, 외적인 성과나 성공만을 추구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초고속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40대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유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은 농민주일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 묵묵히 소중한 땀을 흘리며 우리의 먹거리를 장만하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요한 15,1 참조)의 사랑을 믿고 “땅의 귀한 소출을 참고 기다리는”(야고 5,7 참조) 농민의 마음가짐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와도 통합니다. 농민들은 농사가 인간의 외적인 활동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느님의 축복과 섭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타의 사랑방법과 마리아의 사랑방법이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지치지않고 가다.

탁월한 문장가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운다 하고, 천재 피아니스트 역시 손가락
끝이 짓무르도록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합니다.
스포츠도 예술도 학문도 경지에 이르는 길에 지름길은
없나 봅니다. 그저 무한 반복 하는 것뿐.
지루하게, 지겹게, 미련하게, 바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사도요한	유철희 마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아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주제표어 공모 이번주 마감
금년 추수감사절(11월28일) 합동 야외미사를 본당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에 걸맞은 주제표어와 미사후 2부행사내용에 관하여 교우들의 의견을 이번주에 공모 마감합니다.

- 주제 표어 : 한 문장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
- 2부 행사 : 성당간 친교, 2부 행사에 적합한 내용
- 제출 : 신중철 아브라함 사목회부회장 ☎(310)619-4343
- 1차준비상황 보고 회의 : 오늘주일(21일) 낮미사후 1시

◆ 남가주남성 제37차꾸르실료 수료자 환영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21일) 오후 7시 장당
- 본당 수강자 : 박개순 도미니코,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딩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은혜의 밤

- 일시 : 20일 토요일특전미사와 함께
- 강사 :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
- 내용 : 미사, 특강, 찬미, 안수
- 문의 : 성령기도회 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요셉회 임시총회 및 7월모임 안내

- 일시 : 오늘주일(21일) 낮 미사후 장당
- 안건 : 회칙 개정 및 간부 인준
- 특별점심 메뉴 : 부부동반 참석 환영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2013년 제26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코 5,34)
- 일시 : 7월27일(토)~28일(주일),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 강사 : 박효철 신부(청주), 임문철 신부(제주), 정광호 신부(보스턴), 배기현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지도)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213)435-7570
- 준비물 : 도시락과 생수는 각자 준비하십시오.

◆ 강동욱 세례자요한 신부님 환영합니다. ◆

부산교구 강동욱 세례자요한 신부님께서 백삼위 본당을 홈으로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St. Meinrad(성 마인라드)신학교에 Formation Staff으로 부임하십니다. 이 신학교에서 사목신학석사와 설교지도자 자격증(2005~2010년)을 취득한 강신부님은 앞으로 신학교 방학중에 백삼위본당에 오셔서 본당신부님을 도와 사목을 협조하십니다. (7월18일 오셔서 8월5일 학교로 떠나십니다.)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두번째주일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1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사목위원, 제단체장 임원명단 홈페이지로 보내주세요.

2013~2014년 새사목회 각 분과위원들과 활동단체(소공동체, 제단체, 산하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한국학교)의 임원명단(e메일주소와 전화번호)을 홍보분과 e메일 103skcc@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가톨릭 신앙공부(Catholicism)

전세계 여행을 통해 가톨릭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비디오 신앙 프로그램, 예술, 건축, 문학, 음악을 통해 가톨릭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 대상 : 전신자(10주코스)
- 일시 : 10월까지 매주 토요일(7월13일부터 시작했음) 오후 2시~오후 3시30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견진성사 사진 찾아가십시오

6월23일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께서 주례하신 백삼위 본당 견진성사의 사진이 사무실에 준비되어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7월21일(주일) : 토런스 동 2반(비빔밥 \$3)
- 7월28일(주일) : 토런스 서 2반(마당국수 \$3)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관기	김대우	김상규	김원호	김현숙
	남성철	민기남	박광자	박봉성	박영룡	박영희
	성낙호	송종두	신현화	안재만	안태갑	우영희
	유근우	유영균	윤석구	이근태	이병찬	이인석
	이일길	이현주	정규숙	정열모	정정연	정혜영
	정훈모	조준제	주이자	최기호	최의수	최이원
	황지영	송마이클	이브리아나			
합계 : \$5,085						
주일미사 현금 : \$2,831						

성전헌금	권태만	김관기	김대우	김원호	김현숙	남성철
	박봉성	박영룡	성낙호	송종두	신현화	안재만
	안태갑	유근우	유영균	이근태	이병찬	이인석
	이현주	정규숙	정열모	정정연	정혜영	정훈모
	조준제	최기호	최이원	황지영	송마이클	
	이브리아나					
합계 : \$3,775						
한남체인 도네이션 : \$260						

공지사항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출발 : 금요일 11시30분까지 성당 집합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5학기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3'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7월26,27,28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KYCR 제22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8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리버사이드 Divine Word 피정센터
- 지도신부 : 정브라이언 가브리엘 신부
- 참가대상 : 18세~30대 미혼/기혼 청년
- 회비 : \$160(7월20일이후 \$180)
- 연락처 : 이원록 ☎(562)688-4322

◆ 신달자의 '문학과 종교' 초창 강의

- 일시 : 8월4(주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한국순교자 성당(웨스트민스터)
- 강사 :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 문의 : 정찬열 시몬 ☎(714)530-3111

◆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8월11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및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 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CLC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 정구평(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ey(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 신청마감 : 8월10일,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213-675-0498 7/14(주일) 낮미사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4(주일) 낮미사후 토런스 파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7/14(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3(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26-7348 7/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7/9(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804-7645	조정선 마리아 213-550-6653 7/12(금) 오후 7시 강당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7/21(주일) 오전 10시 델슨 파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이병우 마리오 784-0585 7/2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 구역 합동반모임 7/13(토) 오전 11시 라이언 파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합동 반모임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회장단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2013~14회기 첫사목회	오후 1시
----------------	-------

엄마의 기도

얼마 전 소임 이동으로 공동체가 바뀌는 바람에 급히 짐을 쌌습니다. 떠남과 떠무름은 수시로 있는 일이라 어려울 것도 없지만, 일상의 물건들을 챙겨 담고 그 짐을 다시 풀어 제자리를 찾아 놓는 일은 늘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합니다. 짐을 싸고 풀 때마다 평소 잊고 있던 물건에 손이 닿게 되고, 그와 함께 지난 추억이 마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짐정리를 하다가 잘 쓴 서류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보내셨던 편지였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말고 어수선한 방 한가운데 앉아 엄마의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막 끝을 배운 아이처럼 크기도 모양새도 들쭉날쭉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배움이 없어 제게 보내는 글이나 또 저를 위해 바치는 기도에 엄마가 가진 만큼의 마음을 풀어 담지 못한다며 미안해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수녀 딸을 위해 평생 잡아본 적 없던 연필을 쥐고, 한 줄 한 줄 서툰 글을 써내려간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학력은 야학 일주일일 전부였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하면 팔자가 드세진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굳게 믿고 계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첫 딸인 엄마의 배움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다들 하는 공부가 부러워 몰래 야학에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통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늘 당당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플 때면 가끔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지금보다는 좀 수월했을까?'라고 혼잣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가 딸을 수녀원에 보낸 뒤부터 배우지 못했음을 자주 한탄하셨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기도도 잘할 줄 모른다." 배우지 못한 탓에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수녀 딸을 위한 기도 뒷받침도 할 못한다며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수녀원 오던 날, 제 손을 쥐고 "성모님이 진짜 네 엄마다. 무엇이든 성모님께 다 맡겨라." 하시던 그 순간부터 묵주를 잡은 엄마의 기도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기도로, 더 깊은 기도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늘 죄스러워하셨지만, 이 딸을 위해 바친 엄마의 기도는 단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는 최고의 기도였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이고, 기도는 끊임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일 년 전 엄마는 손안에서 닳고 닳아 반질거리는 묵주 하나와 편지 몇 통을 남겨두고 성모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의 그 묵주를 손에 쥐고 엄마를 떠나보낼 때 드렸던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엄마! 성모님이 당신의 엄마예요. 성모님께 다 맡기고 이제 성모님 품에서 내내 행복하세요."

◆신명희 엠마 / 성바오로 딸수도회 수녀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 양심이란 무엇이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양심에 교육이 필요하나요?

사람은 하루를 살기 위해 보통 세끼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가지 말과 행동을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행위는 타인은 물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 결과는 이웃과 자신에게 선한 것이 되어 기쁨과 평화를 주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어 많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먹지 말아야 할 상한 음식은 감각기관으로 분별하는데, 인간은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알아보는 이성적 판단, 즉 양심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양심 깊은 곳에는 자신이 복종해야 할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 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악을 피하도록 해줍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가장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홀로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때 순간 인간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그리스도의 모든 대리자들 중에서 첫 번째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양심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 교육이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인간은 부정적인 영향에 물들기 쉽고,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여 권위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교육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양심의 역할인 도덕적 판단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잘 형성된 양심은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양심은 바르고 진실할 때 빛나고, 혀는 진실을 토해 낼 때 가장 위대합니다. 양심은 생명의 길을 찾아 비추는 등불입니다. 과학과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편리함을 미끼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처럼 한 가지뿐입니다. 삶의 매 순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양심은 자기 혼자만이 찾아볼 수 있는 감실입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계명을 되새기고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매일 올라가야 할 마음속의 시나이 산입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